卽身成佛의 大道 ─ 密敎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총지종보

인지어서 과받음을
굳게믿고 행하는데
일체고통 소멸되고
서원대로 되느니라
─ 종조법설집 ─

제 6 호

등록번호 마-2360호
등록일자 1995. 8. 29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082

발행인　안종호
편집인　이중석
인쇄인　김규석

대 표 전 화　(02)552-1080
발 행 인 실　(02)562-8823
편 집 국　(02)508-8933
광 고 신 청　(02)552-1081
구 독 신 청　(02)552-1083
팩　　　스　(02)552-1082

주 요 기 사

1면 · 수명관정식
2면 · 사설
3면 · 賞의 의미
4면 · 법장원 논단
5면 · 밀교개론·사회복지론
6면 · 신행일기·이런불자
7면 · 관음사 탐방
8면 · 藝人을 찾아

행 사 안 내

◦ 수명관정식
· 일시 : 11월 21일 12시
· 장소 : 대전 만보사

◦ 월초불공
· 일시 : 12월 2일~12월 8일

◦ 창교절 기념법회
· 일시 : 12월 24일 10시
· 장소 : 각 서원당

수명 관정식(受明 灌頂式) 재개

밀교를 통한 성불의 첫 관문
15년만에 삼매야 계단 설단

제3회 수명관정식(受明灌頂式)이 11월 21일(목요일) 정오에 총지종 만보사(주교 총지화 전수: 대전시 중구 대사동 152-4)에서 봉행된다. 이번에 열리는 수명관정식은 일명 학법(學法)관정이라고도 하며 삼매야 계단(三昧耶 戒壇)을 설하여 봉행한다.

수명관정은 총기 7년(1978년)에 부산 정각사에서 처음으로 봉행되었으며 이후 총기 10년 총지사에서 563명이 삼매야계를 받은 이후 15년만에 다시 재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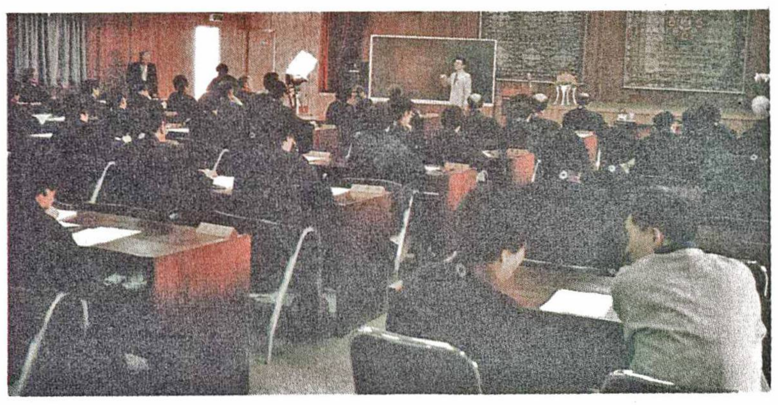
이번에 계를 받게 되는 인원은 모두 8백50명으로서 비로자나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밀법(密法)을 호지(護持)하고 신심이 돈독한 불자에 한하여 불명과 함께 삼매야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삼매야란 밀교에서 평등·본서(本誓)·제장(除障)·경각(驚覺) 등의 뜻으로 쓰는데 이것은 곧 부처와 중생이 그 본질에서 차별이 없음을 나타내며 부처는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여 성불하도록 서원하는 것이며 중생은 부처의 가지력에 의하여 번뇌의 장애를 물리치며, 불타의 깨우침에 의하여 지혜를 얻게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관정이란 수계하여 불문에 귀의할 때 물이나 향수를 정수리에 뿌린다는 뜻으로 밀교에서는 전법의 인가나 특정한 불(佛)과의 불연을 맺기 위한 절차로서 특히 이 관정을 중히 여기는데 수명관정 이외에도 결연관정, 전법관정, 사업관정, 인법관정, 이심관정 등이 있다.

수명관정의 순서를 보면 먼저 갈마아사리가 개단선언을 하고 예불게송과 삼취정계송, 훈향정공,오대서원 낭독, 수계자 참회 귀명, 대아사리 청사, 유가 삼밀, 수계권청문 봉독, 수계심덕 교설, 오지관정 및 서수수여, 수계증 수여, 회향발원문'제창 등의 순서로 이루어 진다.

한편 통리원에서는 이번 수명관정식을 계기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불명(佛名)부르기와 법회시 법의 착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불명을 부르므로서 서로가 불자임을 일깨워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명에 담긴 뜻을 자기 수행의 거울로 삼으며 더욱 정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식 법회시 법의를 착용하므로서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대할 수 있으며 밀법을 수행하는 총지종 종도로서의 일체감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이 통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기회에 관정을 받지 못한 교도들을 위해서는 향후 가장 이른 시기에 다시 계단을 마련하여 관정을 받도록 하며 가능한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 한다.

▲제1회 수명관정식기념. 원정 종조와 함께.



제48회 추계강공회

종단의 발전 방안 논의

제48회 추계강공이 통리원 주관으로 10월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었다. 본산인 총지사를 비롯한 36개 사원과 기로원 수련원 등 전국의 사원에서 65명의 승직자들이 참석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고 소정교육을 받았다.

23일 개강식에서 법공 통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종단의 중심은 승직자이며 승직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종단에 소속된 교도들도 그렇게 따른 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종단의 미래를 짊어진 승직자의 바른 가치관 정립에 본 강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강공기간 동안의 회의를 통하여 통리원에서 구상한 예산안에 대한 종단의 주인인 승직자들이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잘잘못을 지적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공 교육에는 록정 종령과 효강 법장원장의 특강이 있었는데 이번 강의는 이전과는 달리 총지종의 소의경전을 중심으로 밀교의 교리와 함께 교화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공부가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는데 승직자의 기본자세와 사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것을 부탁했다. 이번 강공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종단의 발전을 위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여러 승직자들이 논의를 거쳐 올바른 방향과 실천방침을 설정하도록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는데 있다고 강공에 참석했던 한 승직자는 전했다. 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제는 서원당의 장엄 문제와 법의 개정 및 교화 방향에 대한 것들인데 종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론은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시점에서 종헌이나 종법에 대한 개정 보완 작업도 병행하여 시대에 맞는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강공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 관불수련회에서는 자유로운 의견이 오갔으며 승단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불교소비자 교양대학 개설

총지종 후원, 소비자보호운동의 새로운 장 열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안효강: 불교총지종 법장원장)에서는 소비자 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한국불교종단협 소비자보호위원회 제1회 정책공청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보호운동의 체계적 실천을 위하여 제1기 불교소비자대학을 개강한다. 그동안 타종교나 일반 시민단체의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하여 불교계에서도 그 필요성이 절실히 지적되어 왔는데 지난 7월 총지종이 종단협 산하 소비자 보호위원회(이하 불교소비자보호위원회)의 책무를 맡음과 동시에 활동 방향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해 오던차 먼저 불교계의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이번에 공청회 개최와 소비자 교양대학이 개설되게 된 것이다. 11월 12일 오후 2시 조계사내 불교문화교육관에서 개최되는 제1회 정책 공청회에서는 「OECD 가입과 소비자 정책」이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와 여기에 따른 소비자 관련법에 대한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공청회에는 김수현 재정경제원 서기관과 이용철 변호사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강성진 박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차석박사(불교학)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개설되는 불교소비자교양대학은 소비자운동에 관심있는 불교 신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부터 2시간 30동안 5주에 걸쳐 강의가 진행된다. 장소는 불교총지종 법장원 2층(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전화 3452-7458)이며 소비자운동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므로서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와 피해시의 보상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강의의 목표라고 한다. 주요과목으로는 현대사회와 불교의 경제윤리,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정보화시대와 소비자 운동, 소비자 관련 법률의 이해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사례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는데 각 과목마다 사계의 권위자들이 대거 참석하므로서 강의의 수준이 뛰어날 뿐 아니라 내용이 우리의 일상 경제활동과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운동에 관심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반드시 알아야할 문제들이 다루어진다고 한다. 기획담당자인 서동석 씨(불교소비자보호위원회 기획실장: 전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에 의하면 본 강좌는 기초반이며 향후 교육효과를 보아가면서 중급반, 전문반도 병행하여 개설할 것이라고 하며 수료한 사람은 회원으로 우대할 것이라고 한다.

지혜의 빛 자비의 샘, 불교텔레비전

불교TV!
주식공모에 동참합시다

미래불교를 선도하는 불교텔레비전이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불자주식 청약을 접수합니다. 불자 모두가 주인인 불교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해 벽돌 한장 쌓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 기　　간 : 96. 11. 1~97. 2. 20
■ 청약방법 : 1구좌 10만원 이상, 지로용지를 이용 전국의 우체국 및 농·수·축협을 포함한 시중은행에서 접수
■ 청약서 교부처 : 전국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및 부산지사

※각 은행의 지로용지를 이용하실 분은 지로번호 7614677를 적어 넣으시고 성명과 전화번호 동참액수를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을 원하시면 신한은행 334-05-011307(예금주 불교텔리비전)의 연결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

케이블TV 설치 문의처
■ 서울지역 · 강남케이블TV(강남구)518-3000 · 강동케이블TV(강동구)4747-115 · 강서케이블TV(강서구) 3663-1414 · 구로케이블TV(구로.금천구)830-8300 · 관악케이블TV(관악구)877-5000 · 노원케이블TV(노원구)934-3366 · 동대문연합방송(동대문구) 215-0114 · 동부케이블TV(중랑구)433-2121 · 동서울케이블TV(성동.광진구)498-6000 · 동작케이블TV(동작구)824-8080 · 마포케이블TV(마포구)717-1125 · 미래케이블TV(도봉.강북구)999-5555 · 북부케이블TV(성북구)942-0001 · 서서울케이블TV(서대문구)365-0101 · 서초케이블TV(서초구)525-8852 · 용산케이블TV(용산구)318-2700 · 우리종합유선방송(송파구)418-3000 · 은평케이블TV(은평구)388-8000 · 중앙케이블비젼(종로.중구)753-6781~3 · 한강케이블TV(영등포구)634-3200 · 한국통신케이블TV(양천구)645-2222 **부산지역** · 금정케이블TV(금정구)515-6140 · 낙동케이블TV(강서.사상.북구)326-9112~6 · 동남케이블TV(남.수영구)620-5000 · 범진케이블네트워크(부산진구) 640-8585 · 부산케이블TV(동래.연제구)555-0300 · 서부산케이블TV(서.사하구)293-0300 · 중부산종합유선방송(중.동.영도구)412-0666 · 해운대케이블TV(해운대구)746-1122 **대구지역** · 금호케이블TV(북구)953-4000 · 동구케이블방송(동구)985-7777 · 대구케이블비전(중.남구) 656-5555 · 서대구케이블TV(서구)567-6000 · 수성케이블방송(수성구)768-8888 · 푸른방송(달서구)551-2000 **인천지역** · 남동케이블TV(남동구)422-4757~9 · 남부종합유선방송(연수.남구)875-0307 · 북인천케이블TV(부평.계양구) 551-9300 · 서인천케이블TV(서구)582-3211~4 · 서해종합유선방송(중.동구)761-8888 **광주지역** · 광주케이블텔레비전(동.북구)512-4433 · 광주케이블TV네트워크(서.남.광산구) 370-5700 **대전지역** · 대전케이블TV(대덕.동구)673-3322 · 한밭케이블TV(중.서.유성구)222-8350~1 **기타지역** · 수원방송국(수원)257-4011~9 · (주)강원케이블TV(춘천시.홍천.철원.화천.양구군) 242-2131~2 · 청주종합유선방송(청주시.청원군) 271-3000 · 천안케이블TV(천안시.천안군)551-9991~8 · 전주케이블TV(전주시.완주군)250-6500 · 서남방송(목포시.신안.무안군)76-7777 · 경북케이블TV(포항시.울릉.영일군) 251-7777 · 경남케이블TV(창원.진해시)67-6900~4 · 제주케이블TV(제주시.북제주군)41-7777

사설

과소비는 망국의 원인

사회지도층의 절제가 아쉬워

최근에 보도되는 과소비현상을 보면 나라의 장래가 매우 걱정스럽다. 억대를 호가하는 모피옷에 각종 귀금속은 말할 것도 없고 몇백만원 짜리 옷은 보통인 모양이다. 수천만원 짜리 호화 가구에 몇백만원 짜리 술까지 거래되고 있다니 평범한 서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것들이다.

이러한 과소비는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까지도 외국인들의 냉소와 지탄을 받아가며 자행되고 있는데 최근 검찰에 의해 적발된 것만 보더라도 몇천만원 짜리 시계와 보석 구입은 보통이고 불과 보름사이에 수천만원의 술값을 날린 자가 있는가 하면 한번의 도박에 오천만원을 날린 자도 있었다. 이런 것들은 과소비와 낭비 차원을 넘어 정신나간 자들의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의 주동자들이 기업체 사장, 정치인 및 교수등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급 인사들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8.15 해방과 더불어 6.25라는 처절한 아픔을 겪고 이데올로기의 대립속에서 눈물겨운 노력을 통하여 이제 겨우 일인당 국민소득 일만불의 문턱에 들어섰다. 그것도 부의 편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왜곡된 경제구조 속에서 수많은 희생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상회하는 유럽, 미국, 일본등 선진국 국민들보다도 소비가 더 심하다는 것이 나라 안팍에서 여러번 지적되어 왔으며 아울러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1천억불에 육박하는 외채, 일년치 무역적자가 3백억불에 달하는 이 나라에서 재력있는 사회지도층들이 앞장서 과소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무역적자나 경제성장의 둔화등 단순한 경제문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총화를 저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하는 국가안보차원의 문제임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한다. 한나라의 멸망 배경에는 언제나 사치와 향락이 그 주된 작용을 했다는 것은 역사를 통하여 익히 보아온 바이다. 작금과 같은 과소비는, 특히 그것이 그릇된 부의 축적에 의하여 이루지는 것일 때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박탈감을 느끼게 하여 국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국력을 좀먹는, 역적행위에 비견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회 지도층들로부터 시작된 과소비 행위는 마약처럼 사회의 각 계층으로 만연되며 이것은 동시에 부패와 타락으로까지 연결되므로서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함과 동시에 과격한 반체제운동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반만년의 장구한 역사를 펼치며 이제 새로운 세기를 앞에 두고 세계를 향해 도약해야 할 우리가 과소비라는 하찮은 누수행위에 의하여 좌절할 수는 없다.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각자가 근검절약으로서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하여 매진해야 할 것이며 모두가 과소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우리 불자들은 근검절약이 우리의 기본 덕목임을 명심하여 사회의 본보기가 되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16주기 종조 멸도절

평소의 가르침을 오늘에 살려야

종조멸도절을 맞아 본산에서는 지난 9월8일 3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록정 종령을 비롯해 법공 통리원장, 효강 법장원장 등 전국의 승직자 60여명을 포함한 교도대표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원송 재무부장의 사회에 따라 종령 스승 유족 교도 순으로 헌화 및 훈향정공을 실시했으며 록정 종령의 추선사가 이어졌다. 또한 종조인 원정대성사의 생전 육성법문도 있었는데 듣는 이의 감회를 새롭게 했다.

한편 법공 통리원장은 인사말에서 이 땅의 유일한 정통밀교종단인 우리 총지종의 종조이시며 근대 밀교의 개척자로서 헌신하신 원정대성사의 16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종조께서 평소 강조하신 보살정신을 더욱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했다. 또한 종조 추모사업을 더욱 구체화하여 그 뜻이 영원히 기리도록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전에 헌화하는 록정종령및 종단 중진.

환당대종사 열반 3주기

교학의 기틀 잡은 큰스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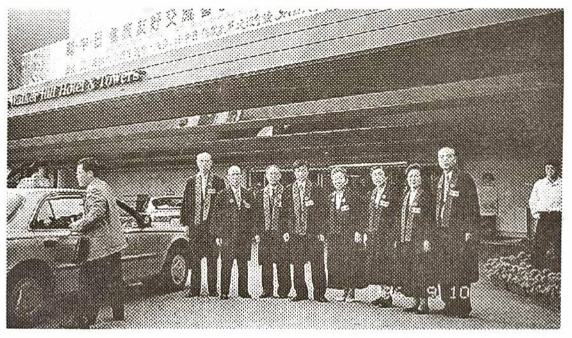
10월 2일 총지사에서 환당 대종사 열반 3주기 추선불사가 봉행되었다. 당일 전국의 승직자를 포함한 유가족, 교도 대표등 2백여명이 추선불사에 동참했다. 이날 록정 종령은 추선사를 통해 "비록 육신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생전에 종단을 위해 분골쇄신하신 공덕으로 인해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종단이 있으니 언제까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할 수 있다"며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교화에 힘쓰신 환당대종사의 공덕을 추모했다.

환당 대종사는 통리원장, 법장원장 등의 요직을 거쳐 종령으로서 종단을 영도하시다가 열반했는데 불교총전, 밀교장경, 종조법설집 등의 종단관계 여러 서적을 편찬 출간했고, 특히 법장원을 주축으로 종단의 교학 발전에 힘씀으로서 총지종이 정통밀교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복지화 지수 추모제

육성녹음 설법경청

복지화 지수의 열반 4주기 추모식이 10월 29일 2시에 총지사에서 봉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과 경인교구 스승님 및 교도 대표 2백여명이 참석하여 평소의 덕을 기리고 녹음으로 남아 있는 생전의 육성 설법을 경청했다. 백마디의 말보다도 한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더 값진 것이며 인과의 도리를 잘 명심하여 정진에 힘쓰라는 생전의 청아한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감회를 새롭게 했다. 복지화 지수는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본산인 총지사의 주교로 일선에서 교화에 진력하시다가 지난 92년에 열반했다.


◀한중일 불교대회에 참석한 종단중진들。

◀보리수마을을 방문한 법공 통리원장。

총지대학 승직자 교육

교학과 포교의 연계를

중앙교육원(원장 효강)에서는 지난 8월29일부터 30일까지 승직자를 대상으로 총지종 본산에서 교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총 54명으로서 교육내용은 중앙교육원장인 효강 정사의 밀교개론, 허성구 박사(대원불교대학 학장)의 불교의식, 김진태연구원(법장원)의 불교개론, 김호성박사(불교학 전공)의 천수경, 장익씨(동국대 박사과정)의 밀교의 수행체계 등이었다.

이번 강의는 새로운 시각에서 교리와 수행을 고찰한 것에 특색이 있는데 기존의 강의와 달리 참신성이 매우 돋보였다는 것이 후평이다.

특히 효강원장은 스승의 임무에 대해 교학적인 접근을 꾀했고, 허성구박사는 "밀교는 의식을 중요시한다"고 강조하며 "불교계에 두루 퍼져있는 의식은 모두 밀교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또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밀교를 전공으로 하고있는 장익씨는 "물질숭배 풍조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도덕적 혼란에 빠진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밀교 뿐"이라며 승직자들에게 사명감을 가질 것을 주장했다.

교육에 참가했던 한 승직자는 "우리의 본분은 포교인데 전문 학자들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설법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 타성에 젖어 자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어 매우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앙교육원의 실무 담당자는 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 실시후 시험을 치르거나 레포트를 제출하도록 해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데서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승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찬불가의 대중 홍포

대전지구 불교 음악제

◀최영철 선생과 만보사합창단。

5회 불교음악제가 10월 27일 오후 7시 대전불교사암연합회와 불교연합합창단의 주관으로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민속무용공연과 각 사원 합창단 및 연합합창단의 찬불가 합창으로 꾸며진 이날 행사에는 대전지구 불교 관계자 및 신도 1천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삼귀의 사홍서원 등의 작곡으로도 유명한 최영철 선생의 지휘와 총지종 만보사 합창단의 열창이 돋보였다고 한다. 주최측에 의하면 이러한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발전시켜 찬불가의 대중성 확보와 불교 홍포의 방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 수첩

화환을 없애자 허례허식은 죄업을 짓는 일

꽃은 심성을 순화하는 식물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 없다'는 말이 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 공양물로 꽃을 꼽기도 한다. 서양에서는 경삿날 꽃을 선물로 보내는 풍습이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개업집 주변에는 어김없이 친지나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보내온 화환이 풍성한 미래를 기원하며 서 있다.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도 꽃이 있고, 연인들 사이에서는 애정의 징표로 꽃을 선물하기도 한다. 또 나쁜 일에도 꽃이 빠지지 않는다. 꽃을 들고가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꽃을 선물해 상대를 더욱 기쁘게 하거나 위로하는 것은 아름다운 풍속이다.

최근 불교계에서도 꽃선물이 유행하고 있다. 어떤 종류의 행사에 가더라도 보낸 사람의 이름이 대문짝 만하게 써진 대형화분과 하루가 지나면 시들어버릴 값비싼 화환이 행사장 입구에 늘어서 있다. 화환이 많이 늘어서 있어야 그럴듯한 잔치로 보이는게 불교계 행사의 현주소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붙은 화환을 행사장 입구에 세워놓기 위해 안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막상 행사장에는 그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국회의원 ○○○라는 이름의 화환은 있는 것이다. 그 국회의원이 화환을 보낸 것이 아니라 주최측에서 행사에 무게를 싣기 위해 자체에서 마련한 것도 있다고 한다.

이 꽃들은 하루만 지나면 시들어 쓰레기로서 골치거리가 된다. 그러나 꽃을 장만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엄청나다. 화환 한 개당 15만원 정도이니 열 개만 해도 최소한 1백50만원인데 이돈이면 불우이웃을 도와 주어도 여럿을 도울 것이고 아프리카의 굶어 죽는 어린이도 수천명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액을 단 한 번의 전시효과를 위해 써버리는 것이다.

불교는 자비사상을 주요사상으로 삼고 절약을 주요덕목으로 여기고 있다. 화환 마련을 위해 사용되는 돈을 아껴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하고 고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는등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는게 올바른 불교인의 행동일 것이다. 한번의 생색을 위해 거금을 낭비하는 것은 분명 죄업을 짓는 일이다.

굳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작은 화분 하나를 선물하거나 금일봉을 전달해 주최측에서 요긴하게 쓰도록 하는게 훨씬 보람된 일이 아닐까 한다.

〈銀〉

수명 관정식 공고

총통 제25－38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수명 관정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수계통지서는 개별로 전달하지 않고 각 사원 주교에게 통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준비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수계일시 : 총기 25. 11. 21 목요일 12:00～16:00
2. 수계장소 : 대전 만보사 서원당
3. 수계대상 : 수계통지서에 의거
4. 수 계 비 : 25,000원
5. 기 타 : 수계비는 사전에 납부하여 주시고 당일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각 사원 주교는 수계대상자를 인솔, 도착시간을 앞당겨 최대한 주시기 바랍니다.

총기 25. 11.

불교 총지종 통리원장 법공 합장

현대 밀교의 개척자 - 원정 대성사

우리나라 현대밀교의 개척자이며 총지종의 종조인 원정대성사 열반 16주기를 맞이하여 종단원로로부터 원정 종조님에 관련한 일화를 듣는다.

〈편집자주〉

▲일본 불교계를 사찰하며. 중앙이 원정님

일상생활을 불공하는 마음으로 박학다식과 정확한 판단이 빛나

원정종조님은 무엇보다도 공사의 구별에 철저하셨다고 한다. 재가불교로서 공사의 구별이 철저하지 못하면 자칫 불미스러운 오해가 있기 십상이기 때문에 원정님은 이런 일에 몸소 본을 보이신 것 같다. 효강 법장원장에 의하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20여년 전에는 포니가 제법 대접을 받을 때였는데 당시 본산에는 업무용으로 포니승용차가 한 대 있었다. 종단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종조님께서도 볼일이 있을때는 그 승용차를 이용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70을 훨씬 넘기신 원정님께서 해가 다 저물어가는 무렵 혼자서 버스를 탄다고 나가시는 것이다. 그날 원정님 큰댁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는 종무와 관련없는 것이라 하여 굳이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향하시더라는 것이다. 원정님께서는 이처럼 종무와 사무(私務)를 철저하게 구별하셨다.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시간에서도 철저하셨다. 공적인 시간에 개인 볼일을 보는 것은 일체 금하셨다. 누가 지켜봐서가 아니라 부처님 덕에 밥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 여기셨던 것이다. 또한 시간만 나면 불공을 하셨는데 백일 불공 정도는 대수럽지않게 여길 만큼 종조님은 일상생활과 불공을 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시불공 처처불공을 강조하시며 불공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생활이 곧 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통리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청암정사(현 지인사 주교)는 원정종조께서는 기억력이 뛰어나고 판단력과 예지력이 탁월하셨다고 회고했다. 고령에도 불구하시고 한 번 들은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며 사태를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하고 의견제시가 분명하여 빈틈이 없으셨다고 한다. 어느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원정님께서 라디오를 들으며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는데, 나중에 여쭈어보니 라디오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고, 쓰시던 글도 한 자 틀리지않고 쓰셨다는 것이다. 본산건물을 지을 때도 그 쓰임새를 정확하게 내다보시고 문은 어느 방향으로 내고, 복도 폭은 얼마를 잡고 등을 오히려 건축업자에게 지시하고 일일이 지적해 주셨다고 한다.

또한 원정님은 날카롭게 보이는 외모와 달리 성품이 온화하시고 교도들의 말에 항상 귀 기울이시며 의견을 청취하셨다고 한다. 또한 유모어가 풍부하시어 좌중을 즐겁게 하시기도 했으며 사고의 폭이 한정되지 않고 모든 면에 박학하시어 사람들을 슬기롭게 깨우치시므로서 이 시대의 대승보살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하는 것이 가까이에서 모셨던 여러 원로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1907년 1월29일 경상남도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하셔서 현대밀교 발전에 큰 주춧돌을 놓으시고 1980년 9월8일 74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셨다.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나라사랑은 역사사랑에서

유네스코에 의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어쩌면 가진 자들의 유희를 위한 희생물이 될지도 모르는 차에 세계에 둘도 없는 석굴암조차도 관리 소홀로 균열이 가고 치명적인 훼손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 말고도 분황사 석탑의 훼손이나 성덕대왕 신종의 낙서와 흠집등 최근에 보도된 불교문화유산의 훼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럼에도 관계당국은 예산타령만 하며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는 둥 조사를 해 보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둥 구렁이 담넘어 가듯 상투적인 말로 어물어물 넘어가버리고는 한다. 그러기를 벌써 수십년째 이제는 방치할래야 방치할 수도 없는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관계당국이 정말 문화유산 보존의 뜻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불교적인 것을 감안할 때 혹시 불교에 대한 괄시에서 이러는 것이나 아닌지 의심도 든다. 이상한 종교에 물든 자들이 관리자리에 앉아 더러 상식밖의 짓도 태연히 할 때가 있어 해보는 소리다. 쓸데 없는 기우이기를 바란다.

본보는 사설에서도 여러번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의 역사를 소홀히 하고 문화유산을 천대하며 전통을 존중할 줄 모르는 민족이 번영을 바란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올바른 민족정신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경제발전 운운하며 떠들어보아야 부작용만 더 낳을 뿐이다. 나라사랑은 조상들이 물려주신 청정한 국토보전과 문화유산의 보호로부터 시작된다. 문화체육부에서도 (비록 사업계획이나 예산안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은 약간은 한심한 지경이지만) 내년을 "문화 유산의 해"라고 선포하겠다고 하니 약간은 기대를 해보자. 여기에 더하여 일반인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져야겠고 특히 우리 불자들은 불교의 수호 차원에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불교문화유산 보호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었으면 한다.

상을 받고도 께름칙 해서야

상의가치가 저하된 사회 주고 받음에 진실 담겨야

서동석

인간 세상을 비롯하여 천지 만물은 항상 변화한다.전혀 변함 없을 것 같은 바위도 바람과 비의 작용에 의해 서서히 갈라지고 깨져 그 본디의 형체를 잃고 나중에는 갯가의 모래로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것을 일컬어 성주괴공이라 하든가.

다만 인간이 떼를 지어 모여 살고 있는 사회의 변화는 자연의 변화와는 달리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연은 계절이 바뀌는 것 처럼 순환과 반복을 거듭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얼핏 반복하는 듯 하지만 결코 제자리 걸음은 아니다. 하기 좋은 말로 '역사는 흐른다'고 하듯 일정한 쪽을 향해 '진보'한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혁명적'으로 인간의 사는 방식을 발전시킨다. 그 발전의 동력은 뭐니뭐니 해도 새로운 생산기술의 창출에 있고 그 기술력은 다시 생산력을 높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하게 한다.

이 사회적 관계의 변화야 말로 인간이 인간으로 점차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실현한다. 이를테면 인간을 타고난 신분에 따라 주인과 머슴으로 정해놓고 한쪽이 한쪽을 완전하게 부려 먹는 계급 사회는 아직 인간이 덜 성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부처님께서도 바로 이 계급적 질서가 인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틈틈히 지적하셨다. 아니 틈틈히가 아니라 당신께서 손수 사십년을 중생과 함께 하신 그 자비의 시간은 순전히 낡은 사회 질서를 청산하고 평등과 자유의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자 함이었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누구를 벌하기 보다 따스한 칭찬을 주로 하셨다. 대중이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자 청하면 '착하고 착하도다'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상의 종류와 제도가 발달하는 것 역시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계급적 신분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사회에는 상의 제도보다 벌의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양반이 상놈에게 상을 준다는 것은 하늘의 질서를 어기는 일쯤으로 치부하였듯이 피지배계급에게는 호된 벌로 감히 고개를 세우지 못하게 하였다. 어쩌다 정 필요할 때, 이를테면 양반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상놈들의 행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낄 때 마지못해 선심이라도 쓰는냥 '당근'을 주는 적은 있다. 하지만 주로 '째찍'을 쓰는 것이 상례였다. 일벌백계라는 말 속에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

현대에 들어 '당근'의 종류와 범위는 대단히 넓어지고 다양해졌다. 그 만큼 사람들의 문리가 틔인것일까. 좌우지간 그전처럼 신분적 질서에 따라 지배하던 사회적 관계는 아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자유인'으로 대접하는 사회가 됐다. 비록 재산의 과다나 학식, 권력 등의 고저에 따라 처우는 다르고 인격적 대접도 달리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성숙한 인간의 사회로 올라섰다. 한발 더 오르면 어느 사회일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는 역사적 성과물이 집적되어 인간의 냄새를 맡게 하는 사회다. 상의 종류와 제도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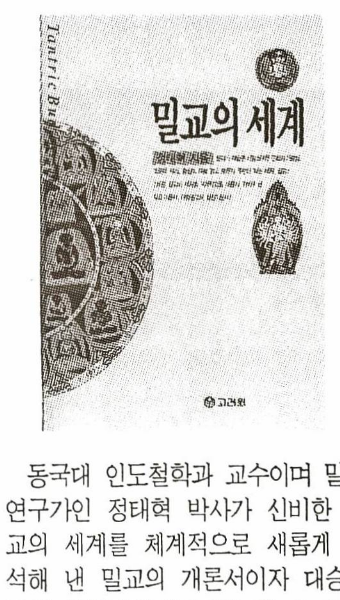
우리가 가장 많이 거론 하는 '상' 하면 노벨상일 것이다. 이 상을 받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영광을 얻게 된다. 그만큼 정치 경제 문화예술 등에 있어 국제적으로 권위가 인정되는 상이기 때문이다. 영화를 하는 사람은 미국의 아카데미상을 반드시 받고 싶을 것이다. 프로야구선수라면 '골든글로브'를 안고 싶을 것이고 작가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문학도는 '신춘문학상'을 꿈꾸지 않을 수 없다. 상을 받고도 기분이 께름칙할 경우가 있을까.

나는 최근에 그런 꼴을 보았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9월 초순부터 열흘 남짓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남미를 순방하고 귀국하기 전에 김대통령은 미국에서 '제1회 루스벨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나 단체에게 상을 수여하여 국제 장애인 복지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라고 했다. 그 상의 첫 수상자로 한국의 대통령이 선정됐으니 기뻐할 일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정작 한국의 장애인이나 많은 국민은 고개를 젓는다.

루스벨트라는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을 미국과 소련 등 연합군의 힘으로 종결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국제연합의 창설도 이끌어 낸 사람이다. 그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않은 장애인이지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따르지 못할 위대한 공로를 세웠다. '루스벨트상'은 그를 기리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제정한 상이다. 앞으로 이 상이 어떤 권위를 가질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수상자의 당사국 국민이 콧방귀를 뀔 정도로 수상자 선정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장래는 뻔하다.

장애인복지만이 아니라 한국의 복지 수준은 우리보다 후진국이라는 나라보다 못하다.정부예산 가운데 91년에는 약10% 정도 차지했던 사회복지예산이 95년에는 무려 4%로 줄었다. 이번에 순방한 브라질(91년 19.2%), 멕시코(91년 12.3%)에 비해도 월등 적다. 장애인 가운데 15%정도만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을 비롯 어디를 가도 불편한 곳 투성이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에 공을 세웠다고 상을 줬으니 준 단체나 받은 사람이나 심기가 편했을까. 혹 미운놈 떡 하나 더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나자 노태우씨는 서울평화상을 제정하여 제1회 수상자로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장에게 줬다. 그 당시 그 상의 제정의도나 수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많았던 기억이 새롭다. 결국 한동안 폐지하네 축소합네 하더니 올해는 '국경없는 의사회'를 선정하였다. 무릇 상이라는 것이 사회적 발전의 산물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습고 가벼히 주고 받아서야 어디 당근은 커녕 무뿌리라도 되겠나. 아무튼 상을 받고 더욱 잘하면 그 상의 뜻도 살지 모르니 잘하고 볼 일이다.

신간안내 밀교의 세계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이며 밀교 연구가인 정태혁 박사가 신비한 밀교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새롭게 해석해 낸 밀교의 개론서이자 대승불교의 실천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는 《밀교의 세계》를 내어놓았다. 그동안 『밀교』·『정통밀교』·『요가의 원리와 수행법』·『인도철학사』·『붓다의 호흡과 명상』등 밀교를 중심한 실천 수행의 체계에 대하여 많은 저서를 낸 바있는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 책을 통하여 만다라로 표시되는 신비하고 거룩한, 멋진 인생 철학을 보여 줄 것이라고 한다. 또한 불교를 지혜의 나무에 비유한다면, 소승불교가 뿌리요, 대승불교의 교리는 꽃이며 밀교의 가르침은 그 열매가 되는 것으로서 이 책을 지혜의 나무와 같이 구상하였으며 다시 밀교에 대한 깊은 연구를 요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등 몇편의 논문도 첨가하여 진리에 목마른 이들에게 감로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깊고 오묘한 뿌리-밀교의 근원〉·〈지혜의 찬란한 꽃-밀교의 생활〉·〈지혜의 멋진 열매-밀교의 인생관〉·〈비밀스럽고 장엄한 세계-밀교의 세계관〉·〈나는 부처-밀교의 수행관〉·〈무수한 변신의 자비방편〉·〈오상성신관의 실수법과 대승적 의의〉등이 실려 있는데 저자의 오랜 강의 경험과 밀교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밀교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고려원 刊 신국판 360쪽 값 8000원

불교 소비자대학 개강 안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불교소비자대학을 개강합니다. 불자의 권익보호와 정토사회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1)개강일시 : 1996년 11월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30분

2)수강대상 : 소비자운동에 관심있는 불교신도 및 일반인

3)수강신청 : 한국불교종단협의회(02-732-4885)
불교소비자보호위원회(02-3452-7485)
불교총지종 종무소(02-552-1080~3)

4)수 강 료 : 4만원(교재비 포함)

5)참 고 : 본 강좌는 기초반이며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중급반, 전문반도 신설 병행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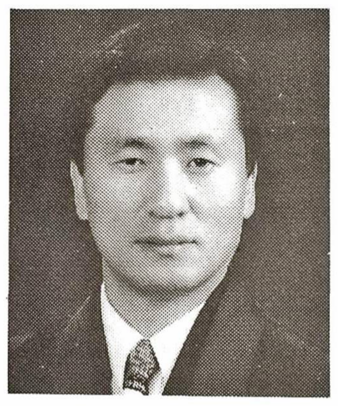
	과 목	강 사	비 고
1주(11/20)	개강사	송월주	종단협 이사장
	현대사회와 불교의 경제 윤리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 교수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허신행	소비자보호원 원장
2주(11/27)	정보화시대와 소비자운동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특강1: 소비자피해구제사례- 신용카드실태와 문제	도영숙	소비자연맹 상담실장
3주(12/04)	소비자관련 법률의 이해	연기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특강2: 소비자피해구제사례- 자동차보험과 사후처리	양두석	손해보험협회 차장
4주(12/11)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특강3: 소비자피해구제사례- 의료사고와 환자 관리	이준상	고대 의사법학연구소 소장
5주(12/18)	소비자문제의 전반적 이해	문정숙	숙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토론 및 수료식	안효강	불교소보위위원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 장 송 월 주
소비자 보호 위원회 위원장 안 효 강
합장

허물은 참회로서 발라져

비방의 과보는 자기가 먼저 받아

▲참회는 수행의 시작이다. 잘못을 참회하지 않는 것은 더러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영원히 깨끗해 질 수 없다.



국광사 주교 법성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영국의 석학 토인비가 "현대인들은 나 이외에는 전부 다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무지한가를 지적한 말입니다. 믿는 행자에게는 수행이라는 큰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수행만 잘 한다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과 같이 오히려 자신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보다 더 자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허물이 보일 때에 남을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없이 얼마나 자기 것으로 잘 소화시키고 참회하면서 허물이 없어지도록 마음을 닦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어느날 법회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신도 한 분이 스님의 허물을 보고 돌아 다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함이 앞서 미움과 원망심으로 잠못이루는 밤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을 때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얻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한 것으로 수행의 경로를 삼으라 하셨느니라"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자신의 허물일 뿐 "그 보살이 아니면 누가 나의 허물을 지적해 주겠는가 "하고 마음 한 번 돌리니 일순간 원망심이 사라지고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착한 보살님이 업을 짓게 되었으니 부처님의 원력으로 저의 업장을 소멸하게 해주시고 그 보살님은 착하고 복되게 해 주옵소서"하면서 정진하였습니다. 그후 몇 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보살님이 어느 날 스님을 찾아 왔습니다. "스님, 제가 업장이 두터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만 해주신다면 이제부터 살인 이외에는 스님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자초지종 사연을 들어보니 5년전에 이 절에 다닌 신도라 하면서 그때 자기가 스님의 허물을 보고 돌아 다녔던 말씀을 드리니 그제서야 스님이 누구인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당시 그는 임신중에 있었고 그 뒤 아들을 낳았는데 기쁨도 잠시 뿐 아이가 5살이 되어도 말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늦 되겠지 생각했는데 클수록 똑같으니 이제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도 가 보았지만 모두가 허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답답하면 우물을 판다고 우연히 점하는 사람을 찾아 갔더니 "당신이 그 아이를 가졌을 때 큰 선생을 모신 분을 욕하고 다녔으니, 그게 수원이 됐어. 수원을 풀어야 말문이 터지니 그 분을 찾아가서 잘못을 빌어라" 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나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그 때에는 스님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고 모든게 밉게 보여서 제가 허물을 봤지요. 이것도 다 제 업인가 봅니다. 스님은 보살님의 원을 다 들어 주고 아이를 위해서 백일불공을 정해서 보살님과 함께 불공에 들어 갔습니다. 새벽 반이면 어김없이 절에 와서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우리 아이가 말을 하게 해 달라고 서원하고 불공하기를 구십구일째 되는날 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이튿날 드디어 백일불공을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그것도 난생 처음으로 「엄마」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옷이 흠뻑 젖도록 울었답니다. 꿈에 나타난 그 노인이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스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불공은 계속되었고 병원치료도 받아 지금은 의젓한 중학생이 되었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게 진리입니다. 업을 짓는 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줄 새삼 일깨워 준 것입니다. 방울물이 모여서 큰 그릇을 채우듯이 조금 지은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가를 보인 법문입니다. 우리는 장난이라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쌓고 쌓이면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 오고야 맙니다.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니 상대 허물 보지 말고 내 허물 고칠지라. 상대 허물 보일때는 단시하고 정진하면 상대허물 발라지고 나는 도로 복이된다."는 종조님 말씀을 우리 모두 실천합시다.

화엄사상과 밀교사상의 관계(1)

화엄의 세계는 비로자나불의 경계를 드러낸것

법장원논단

I. 緖言

화엄경은 초기의 대승경전으로서 상세하게는 {大方廣佛華嚴經}이라하며,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밝힌 경전이라고 한다. 불타의 깨달음의 세계는 비로자나불의 세계로서 상직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화엄사상이란, 화엄경 자체를 포함하여 그것에 일관된 사고방식 및 교리체계를 말한다. 그리고 밀교사상은, 초기대승불교를 주석하고 설명하여 아비달마적으로 정리·조직한 중기 대승불교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출현한 후기 대승불교, 곧 진언밀교의 사상을 말한다. 밀교는 교리적으로 중기대승불교, 특히 중관학파나 유식학파의 깊고 높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삼고, 그것을 다라니와 진언과 만다라 등 알기쉬운 상징의 모양으로 나타내면서 교리와 실천에 임한 신앙과 실천중심의 불교이다. 화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화엄사상과 대일경이나 금강정경을 중심으로 하는 밀교사상은 그 성립시기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사상면에서 그 흐름을 같이하는 점이 적지않으므로, 비교되는 점 몇 가지만이라도 살펴보는 것은 그 의의가 크리라고 본다. 본고는 화엄과 밀교의 사상적 관계를 고찰하므로 철학적인 면에 그 중점이 두어지겠지만 지면관계상 많은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에 초점을 맞추면서 관련되는 몇 가지 내용을 더불어 살펴보기로 한다.

II. 華嚴經의 비로자나佛

1. 비로자나의 상징적 의미

화엄경은 불타의 自覺內容을 드러내는 경전으로서, 本經에서는 무엇보다도 佛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그 중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본경의 근본입장은 그 經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大方廣佛華嚴經 』의 「大方廣」은 「佛」을 형용한 것으로서 大는 體를, 方은 用을 각각 의미한 것이며,廣은 그 체용이 광대무량함을 표현한 것이다.이에 반해 '華嚴'은 비유로서 아름다운 꽃으로 옥대를 장식한 것과 같이 보살이 만행으로써 佛境界를 장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大方廣佛華嚴의 세계는 바로 비로자나佛 그 자체의 경계를 드러낸 것인바 비로자나는 원래 범어 vairocana를 음역한 것으로서 이를 노사나라고도 하며, 흔히 遍一切處·光明遍照라고 번역한다. 이는 佛의 眞身을 나타내는 칭호로서 마치 태양의 광명이 온 누리의 만물을 남김없이 비치고 장양함과 같이 부처의 지혜광명이 法界에 충만하여 일체 중생과 우주만유를 圓明하게 감싸지 않음이 없음을 상징한 것이다.

2. 화엄경에 보이는 비로자나불

전체적으로 볼 때 화엄경에 등장하는 비로자나불은 몇 품에 극히 한정되어 있다.

우선 〈60화엄〉의 〈世間淨眼品 第一〉을 보면,이것은 서품으로 佛이 마가다국의 적멸도량에서 정각을 성취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 불은 如來, 혹은 佛이라고 불리울 뿐으로 비로자나불이라고 이름지어 지지는 않았다. 다만 이 불은 보현 등의 많은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보살들에 대하여, "皆是盧舍那佛 宿世善友一切 成就德大海"라고 설하고 있어 이 품의 불이 비로자나불 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보살들에 이어서 무수한 諸力士·諸神·諸天子·諸天王에 둘러싸여 있으나 이 경우에는 다만 여래라고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게 보면 서품인 「세간정안품」에서 비로자나불은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盧舍那佛品第二」인데, 이것은 품의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품의 불은 비로자나불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비로자나불이 중심이 되고 있다.

"無量劫海修功德 供養十方日一切佛 敎化無邊衆生海 盧舍那佛成正 · · · · · · · · · · · · · · · · 盧舍那佛大智海 光明普照無有量 如實觀察眞諦 普照一切諸法門"이라 하였다.

이와같이 무량의 공덕을 닦고 시방의 일체 불을 공양하며, 무변의 중생을 교화하여 비로자나불이 정각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으며 비로자나불의 광명은 일체 제법을 널리 비춘다고 말하고 있다. 그밖에 비로자나불은 이 품중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노사나불품」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보현보살이 비로자나불의 세계를 설할 때에 우선 一切如來末淨藏三昧(一切諸佛毘盧遮那如來藏身三昧)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是皆盧舍那佛本願方故라고 말하고 있다.

보현보살이 삼매에 드는 것은 보현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비로자나불의 본원력에 바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형식과 같은 것이 「十住品第十一」(「十住品第十五」) 「十行品第二十七(「十行品第二十一」) 「十回向品第二十一」(「십회향품제이십五」) 「十地品第二十二(「十地品第二十六」)에도 보이고 있다.【( )안은 〈80화엄〉】

「십주품」에서는 법혜보살이 무량방편삼매에 들어가며 「십행품」에서는 功德林보살이 善伏三昧(善思惟三昧)에 들고 「십회향품」에서는 金剛幢보살이 明智三昧(智光三昧)에 들며 「십지품」에서는 금강당보살이 대지혜광명삼매에 들어가는 바 이것들은 모두 비로자나불의 본원력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거론한 것이 화엄경에 있어서 비로자나불이 등장하는 주요한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화엄경의 상징으로서의 비로자나불

그밖에 몇 품에서 비로자나불의 이름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60화엄〉「如來名號品第三」 (「如來名號品第七」)에는 여래의 무수한 이름 가운데에 로사나(비로자나)가 보인다. 또한 〈80화엄〉 「초발심공덕품제17」에는 「毘盧遮那寶珠 如意摩尼發光輝」(〈60화엄〉에는 없다)라 하였다. 다시 〈60화엄〉으로 돌아가 「도솔천궁보살운집찬불품 제20」 (도솔천궁중게찬품제이십사])에는 皆是盧舍那如來應供等正覺 行菩薩無量諸法門時善知識이라 하였다.

이상은 화엄에 등장되는 비로자나불에 대하여 조사하여 본 것인데 명료하게 비로자나불이 중심이 되었있는 것은 「노사나불품제2」(「여래현상품제2」에서 「비로자나품제6」까지)와 〈80화엄〉「여래십신상해품제34」 뿐이다. 「세간정안품제1」(「세주묘엄품제2」)은 굳이 말한다면 비로자나불이 암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는 이 방대한 경전 가운데 비로자나불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것은 산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일 화엄경을 하나의 통일적인 경전으로 볼때에 經主를 비로자나불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 경전을 오랜 기간동안 점차 정리 되어진 것으로 볼때는 단지 불이나 여래로서는 경전의 개성이 명백하게 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방편적인 방법으로 經主를 비로자나불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佛 또는 如來라 하거나 毘盧遮那佛이라 하거나 어떻게 보더라도 지장은 없을 것이며, 화엄경이 佛이 설하는 경전이 아니라 佛을 설하는 경전임을 감안한다면 상징적으로 비로자나불을 經主로 봄이 더 나을 듯 싶다.

4. 비로자나불과 법신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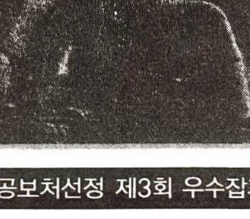
화엄경의 비로자나불을 과연 법신불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 대해서 과거부터 많은 異見이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본경 卷二 「노사나불품」 제이에 설해진, 「무량겁을 통해 공덕을 닦고 시방의 일체불을 공양하며 무변중생을 교화하여 비로소 노사나불을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게송을 통해서 본다면 화엄경에서의 비로자나불은 보신불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같이 그 나타난 문면에만 의존해 본다면 분명 보신불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 틀림없으나 十身具足하고 隔三世間하여 無盡세계 전체가 그대로 불 아님이 없다고 하는 본경 자체의 근본이념에 비춰 볼 때, 삼신은 물론 일체차별을 융섭함과 동시에 그를 넘어선 격삼세간 시신구족의 일대법신이 본경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一切諸佛身唯是一法身 一身爲無量 無量復爲一」이라하여 「一卽一切 一切卽一」, 「一中多 多中一」로서의 일대법신의 의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위에서 지적한 무수겁에 걸친 한량없는 積功累德이라는 표현은 결국 이 격삼세간하고 시신구족한 일대법신 비로자나불의 광대무량하고 중중무진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상징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본경 가운데에 보신, 화신과는 전혀 다른 국토신 등을 설하는 것을 보아도 통불교의 삼신설만으로서는 본경의 불격을 논할 수 없다고 본다.

〈정리: 대현〉

무비스님
금강경 강의
경문과 함께 마치 설법하듯이 쉽게 써내려간 우리시대 대강백 무비스님의 금강경 강의는 번뜩이는 禪氣와 해박한 불교지식이 어우러져 단순한 경전 강의를 뛰어넘어 우리 존재의 진실에 대한 물음과 그 해답을 주고 있다.
● 신국판/288면/값 5,500원

불광 꿈나무 총서 — 어린이는 부처님의 꿈나무
스님이 만들어준 동시집 1. 구름위의 연꽃나라 이민진 지음 · 성륜 스님 그림 / 값 3,000원
어린이 법회 교재 2. 연꽃들의 모임 불광어린이법회 펴냄 / 값 2 500원
온가족이 함께 보는 불교만화 3. 부처님이 좋아요 글·그림 이정문 /값 3,000원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불교만화 4. 부처님이 최고야 글·그림 이정문 / 값 3,000원
어린이가 쉽게 읽는 경전 5. 어린이 천수경 김호성 지음 · 이정문 그림 / 값 3,500원
어린이 포교 교육교재 6.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1 성일 스님 지음/값 6,000원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
佛光

공보처선정 제3회 우수잡지
월간「佛光」은 창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진리의 빛을 우리의 생활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부처님의 법음(法音)을 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참신하고 유용한 내용으로 전법지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광 바라밀 총서 — 불교 교리의 핵심을 쉬운 언어로 전달해주는 …
1.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광덕 지음 / 값 4,500원
2. 삶의 빛을 찾아 광덕 지음 / 값 4,500원
3. 빛의 목소리 광덕 지음 / 값 6,000원
4. 행복의 법칙 광덕 지음 / 값 5,500원
5. 반야심경 강의 광덕 지음 / 값 3,000원
6. 보현행원품 강의 광덕 지음 / 값 4,000원
8. 불교교리강좌 해주 지음 / 값 4,000원
10. 365일 부처님과 함께 김재영 지음 / 값 5,500원
11. 위빠싸나 1 김열권 지음 / 값 6,500원
12. 위빠싸나 2 김열권 지음 / 값 7,000원
13.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한 곳에 박태하외 43명 지음 / 값 4,500원
15. 나무석가모니불 반영규 지음 / 값 3,500원
16. 불교우화백유경 동봉 옮김 / 값 3,800원
17. 부처님의 생애 박경훈 지음 / 값 5,000원
18. 여인성불 운하 용하 편역 / 값 3,600원
19. 직장인의 신앙생활 한탑 지음 / 값 3,800원
20. 교양불교 우정상 지음 / 값 4,500원
21. 불자예절과 의식 김길원 편저 / 값 4,500원
22. 이 기쁜 만남 김재영 지음 / 값 4,000원
23. 나는 빛이요, 불멸이라 김재영 지음 / 값 4,500원
24.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 김재영 지음 / 값 5,000원
25. 무소의 뿔처럼(상) 김재영 지음 / 값 6,500원
26. 무소의 뿔처럼(하) 김재영 지음 / 값 6,500원
불리수총서 3 禪과 日本文化 값6,000원

비구니 시인 정운 스님의 첫번째 산문집!
사람의 향기 정운 스님
정운 스님은 충남 보령시의 작은 마을에서 세원사라는 작은 절을 짓고 수행하는 비구니 스님입니다. 그동안 세 권의 시집을 내고 많은 지면을 통해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마음 조각을 영롱한 시어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향기』는 시로는 다 말하지 못한 출기담, 인연담 그리고 현재의 심경들을 진솔한 필치로 고백한 수필집 입니다. 평소 궁금하게 생각해왔던 스님들만이 갖는 내면의 또 다른 모습을 이 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신국판/228면/ 값 5,500원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밀교학 입문
B.밧따짜리야 지음
장익 옮김
● 신국판/ 284면/ 값 6,000원

밀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읽는다
밀교의 근원, 특히 인도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를 비교분석해 놓은 밀교학 입문서이다.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고대문화와 결부시켜 상세히 언급하고 특히 인도교와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해 놓은 원저작 이후 최근까지 30여 년의 연구성에 따른 학계의 다양한 학설을 함께 실어 20세기 이후 밀교학 연구의 진척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인도의 일상생활과 풍습 및 관습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문화이며 인간의 정신적 완성과 심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인 밀교,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과 인도의 고대문화, 그 정신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中論頌研究
● 김인덕 지음
양장/ 376면/ 값 12,000원

불광출판부
우138-190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1
대표전화 420-3200 팩시밀리 420-3400

밀교개론

인도의 민간신앙을 불교속으로

효강 법장원장

4세기 초에 갠지스강 중류지역에 기반을 두고 「구푸다」왕조가 일어나서 흥하게 되어 차차로 세력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이 「구푸다」왕조가 바라문교를 보호하며 그의 부흥운동까지 힘을 쏟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불교도 급속도로 바라문교의 영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불교교단 안으로 마치 못뚝을 헐어버린 것과 같이 일시에 급속도로 민족신앙 속에 있는 신들, 또는 바라문교적인 儀式이 쏟아져 들어오게된 것도 이 시대의 일이다. 만다라의 근원이 되는 4佛 또는 사천왕도 4~5세기경에 대두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리고 본래는 바라문교의 의례였던 護摩의 의례가 불교에 수용된 것도 이때다. 대승경전중 초기의 것을 보면 '호마는 바라문교의 의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4세기경에 이르러 「護摩檀」의 築造法이 불교경전에 도입되었다 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신있게 엄습하는 재난을 피하고, 병고를 치유하고 싶어하는 현세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흐름이 불교 속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한다. 또한 대승불교에 있어서 신들의 수효 그리고 종류가 대단히 풍부하게 되었다. 약사여래, 문수보살, 미륵보살, 관음보살 등 신앙대상을 넓혀나가게 되었다. 불상면에서도 다면다비상, 즉 얼굴 또는 손이 여러 개 있는 힌두신적인 것들이 불교에 도입된다.

그리고 농경사회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祈雨 또는 止雨 등 바라문교의 의식 가운데 있던 것이 도입되어 이런 것들을 주제로한 불교경전까지도 출현하게 되었다. 불상 앞에서 觀想하는 방법 등도 정리하게 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불교의식도 매우 단순하였던 것이 복잡하게 점차 정비되었으며 불보살 명왕 등의 수효도 매우 풍부하게 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만다라」는 그때까지는 성립되지않았다. 「만다라」가 성립된 것은 7세기경에 이르러서였다. 인도의 민족신앙을 수용하면서 또는 정비하면서 착착 준비하였다가 7세기경에 이르러 일거에 꽃이 피었다.

바라문 내지 힌두교적 신격들이 밀교에 도입되었다. 그림은 관세음보살의 초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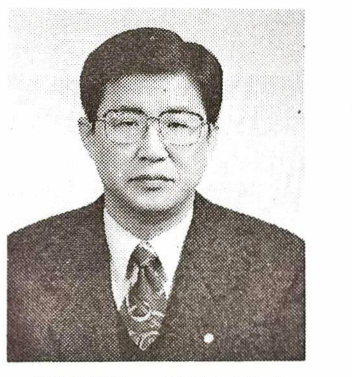
밀교의 역사를 보면 7세기초까지가 초기의 밀교이며, 이 시대를 불교가 종교의식, 주법 등을 수용하면서 밀교가 성립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7세기초에 이르러 大日經과 金剛頂經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대승불교의 般若經은 기원전후하여 2세기에 이르러 성립된 경전인데 "공"을 주제로 한 것이다. 또 한편 예로부터 내려오던 의례적인 것들을 편성하면서 점차로 여러 가지의 밀교경전이 성립되어 나오게 되었다.

대일경과 금강정경등 이 양부경전을 중기 밀교경전이라 하여 이때까지 성립된 밀교경전과는 구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초기의 밀교를 雜密, 중기의 밀교를 純密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잡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저기에서 밀교안으로 수용하였다는 뜻이고 순밀은 그러한 것들을 순화하였다는 뜻이 된다.

불교사회복지의 사상과 실천

불교사회복지는 불교를 주체로 하는 복지활동이며 불교정신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사회적 실천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는 운영하는 주체에 관계없이 복지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실천사상이 매우 중요시 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상은 인간 개인에게 내면화 되어 정신적 바탕을 이루면서 각 개인의 태도, 감정, 사고, 행동의 일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교사회복지실천의 원동력은 자비사상이다. 이 사상은 서구 사회복지의 원동력인 기독교의 Caritas(사랑)와 대비되는 것으로 불교사회복지의 원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Caritas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차이를 일본의 中村元이 자비를 Caritas에 전제하여 설명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택〉

불교의 복지는 자비가 뿌리 일체중생을 향한 보살심으로

그 내용을 보면, 불교의 경우 인간의 사랑(愛)은 자기 사랑인 애(愛)에서 시작하고, 다음은 타인에게 애정을 나타내는 친애(親愛)로, 그리고 특정한 개인을 사랑하는 욕락(欲樂)으로, 또 성적 애정인 애욕(愛慾)으로, 마지막에는 맹목적 또는 충동적으로 집착하는 애정의 갈애(渴愛)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마지막의 갈애가 인간 사랑의 본체인 동시에 인간고뇌의 원천이라고 보았으며, 이 고뇌 속에서 신음과 동정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悲」(Karuna)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 경우 「悲」의 의미는 자기의 고통과 신음을 아는 자가 타인의 고뇌에도 공감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고뇌하는 자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 때 우정(友情)의 의미를 가진「慈」(Maitri)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불교사회복지의 실천사상인 자비의 근본 뜻은, 인간의 사랑과 자비는 단절이 아닌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될 수 있고, 자비의「悲」는 신음을 의미하지만, 이것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고뇌를 공감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교의 자비는 부정된 인간 사랑을 초월한 사명을 의미하며,「一切衆生悉皆成佛」의 내용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현실 속의 일부분의 복지대상 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현실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독교의 사랑이 신에 대한 소망으로서 이웃 사랑임에 반해, 불교의 자비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인식한 진실한 애정이라 말할 수 있고, 인간의 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불교복지의 원점인 자비사상에서 다시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전개를 위한 실천적 가치관을 살펴 보면 먼저, 보살은 마땅히 자비심으로 인간은 물론 날벌레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돌보라는 「佛說太子刷護經」에서의 생명존중사상이 있다. 이 사상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품위를 보장받는 개인존중의 원리를 도출할 수가 있다. 다음은, 보살이 일체중생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서원을 세우고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중생제도에 앞장서려는 자비심의 발로에서 자발성 존중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雜阿含經」에서 부처님이 인도사회의 계급차별에 대항하여 누구나 출생을 묻지 말고 소행을 보라고 한 인간 평등선언으로부터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기회균등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상의상관(相依相關)의 연기법을 통해 사람이 자신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호부조와 사회연대의 원리를 도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불교의 복지사상과 실천적 가치를 살펴 보았다. 따라서 불교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해서 전술한 내용의 자비사상을 불교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무장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기본적 가치관에 입각한 복지활동의 전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불교사회복지도 양질의 내실 있는 복지사업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불교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입안자나 사회사업전문가들이 불교사회복지실천의 원동력이 되는 불교복지사상을 확실히 이해하고, 또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불교복지사상을 실천적 가치로서 도출시켜 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언어철학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

언어의 허구성에 속지 말아야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이 말하는 "한 방울의 문법으로 응축되어버린 전 철학의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불교의 사구백비(四句百非)가 의미하는 것과 같다. 모든 철학적 구성들이나 물음들을 언어적 또는 문법이 일으킨 환상임을 누설하여 인간의 실존의 불안과 관련되어 있는 철학적 구름들을 흐트러뜨리려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의 발판은 무엇인가?

우리가 단 하루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언어란 과연 무엇인가? 만약 우리가 언어적 또는 문법적 그물을 조망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사상적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서양 철학은 로고스를 추구해온 역사이다. 로고스는 절대적 존재라고 생각되는 신의 말씀이자 사유이며, 동시에 이 우주의 설계도이다. 신의 말씀으로서의 로고스는 우리 언어의 논리의 신비화 또는 숭고화가 아닌가?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언어의 논리를 신비화시키려는 저 서구의 철학적 전통에 거역한다. 논리적 또는 문법적으로 모순이 없는 낱말이나 개념은 그것에 대응하는 실재를 반드시 갖고 있다는 플라톤적 관념적 실재론자들이 계속해서 되뇌어온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실재론을 부정하는 것은 언어적 또는 문법적 그림자를 실재로 착각한 전 형이상학의 해소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언어적 논리의 그물에 갇혀서 온갖 번뇌의 고통에서 괴로워하는 인간적 존재들을 해탈시키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의 목표이다.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의 핵심 개념인 삶의 형식으로서의 언어놀이의 개념은 상당히 익살스러우면서도 진지한 것이다. 익살스럽다는 것은 철학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를테면 형이상학자들의 철학의 개념에 대해서이며, 그리고 진지하다는 것은 놀이에 불과한 철학을 포함한 우리의 삶을 바로 보려는 철학자들에 대해서이다.

모든 철학의 구름들을 한 방울의 문법으로 응축시켜버리기 위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치료주의가 채택한 언어놀이의 개념과 방법에 의하면, "이ㅇㅇ는 사람이다."와 "이ㅇㅇ는 사람이 아니다." 등과 같은 명제의 본질이라고 생각되는 '참'과 '거짓'의 개념은 불교가 말하는 '같음'과 '다름'의 개념에 속하거나 문법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개념이다. '참'과 '거짓'의 개념이 명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문법의 부분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문법적 규칙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낸 제도에 불과한 것이지 실재의 본질에 준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레게나 비트겐슈타인 자신이 『논고』에서 생각했던 것과 같은 의미에서 '참'과 '거짓'이 명제에 들어맞는 것도 그 역도 아니다. 따라서 '참'과 '거짓', 또는 '같음'과 '다름'의 배타적인 관계를 발판으로 어떤 것이 명제이고, 명제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의미는 전통적인 원자론적 의미론이 생각한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오히려 형이상학적이며 원자론적인 의미론은 문법적 규칙과 명제와의 관계를 오해해서 '이름-대상' 이라는 단순한 도식하에서 우리의 언어의 쓰임을 설명하려는 사이비-과학적인 철학이 산출해낸 문법적 환상일 뿐이다. 동시에 비트겐슈타인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구의 신비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언어적 따짐이나 다툼을 우상화하려는 그 뿌리를 뽑아버린다.

〈정리 김은주〉

불교토막상식

염주(念珠)

염주는 수주(數珠), 송주(誦珠), 주주(呪珠)라고도 하는데 불·보살에게 예배할 때 손에 들고 칭명(稱名)하거나 다라니(陀羅尼)를 외울 때 쓴다.

금강정유가염주경(金剛頂瑜伽念珠經)에 의하면 염주알은 보살이 증득한 뛰어난 묘과(妙果)를 나타내며 알과 알 사이는 번뇌를 끊는 것을, 염주 줄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나타내며 모주(母珠)는 부처님의 덕을 표시한다고 했다.

또한 염주알의 재료에 의하여 복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수정이나 진주로 만든 것은 백배의 복을 얻으며 보리자(菩提子)·금강자(金剛子)·연자(蓮子)로 만든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알 수에 따라 1080개, 108개, 54개, 27개의 4종이 있으며 그 중 108개가 가장 좋다고 하였다. 총지종에서는 108염주를 주로 사용하며 7개, 21개째에 간주(間珠)가 있는 것이 특색이다.

진실한 참회로 새 삶을

신행일기

윤복자(건화사)

밀교의 수행으로 인과법 깨쳐

총지종 초창기에 서원당이 없어 보살님들은 셋집에서 또는 자기집에서 불공을 했어요. 처음의 그 어려움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사님과 전수님, 보살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종조님을 받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나머지 오늘의 안정되고 발전된 모습의 총지종이 있게된 것을 저는 진심으로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지종이 세계로 뻗어나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된 것은 35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다가 오늘날까지 다니게되었어요. 그런데 보살님들은 어떻게 불공하시는지 궁굼해요. 저는 어떻게 불공을 했느냐고요? 보살님, 한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절에 나가서 부처님으로부터 배워온 것을 가정에서 실천하여 가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가족을 제도해야할텐데, 절에 나가면 부처 되고 집에 오면 중생으로 변하여 자신을 원망하고, 가족 권속을 원망하면서 거미줄같이 엉켜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는지 가족의 반대도 무릅쓰고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집념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왜 시집을 왔을까, 혼자 살았으면 부처님 믿으며 편안하게 살텐데, 하고 싶은대로 하고는 못사는가 하는 생각에 항상 짜증만 났어요. 남편은 왜 나를 도와주지않을까, 부처님 말씀 따르며 한마음 한뜻으로 살면 모든 일이 잘되고, 복덩어리가 저절로 굴러들어올텐데, 남편 때문에 들어오던 복도 나가는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원망의 덩어리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삼남매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부처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웬 일일까요? 서울대학을 바라보던 애가 어느날부터 갑자기 방황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만 앞이 캄캄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 형제 남편 다른 모든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웠어요.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불공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부처님 왜 저는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나요?' 부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어요. 그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돈은 벌 수가 있지만 지금ㄱ 자식을 올바르게 못 키운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느냐는 생각에 모든 것을 팽개치고 다시금 신념을 갖고 49일 불공을 마치고 또하고, 또하고 일년쯤 했을까 하루는 절에 가서 불공하는데 부처님께서 저에게 광명을 비추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너의 앞에 온 것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전생부터 지어온 업연이니라.'

저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에게 진실로 참회를 하였습니다. '부처님 어리석은 중생을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행한 모든 것은 뒤바뀐 생각에 의한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고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로 참회하고, 나와 인연된 권속들, 전생부터 인연된 모든 중생들, 유연영식에게 이제까지 어리석게 지은 죄를 진실로 참회하나이다' 라고 참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시간부터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진실로 참회하여 일체중생을 제도하고, 은혜를 갚겠습니다. 저와 인연된 모든 중생에게 이제까지 뒤바뀐 생각으로 괴롭혔던 것을 진실로 참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마음은 지옥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살고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극락도 지옥도 마음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모두 용맹정진하여 성불합시다.

윤복자〈건화사〉

진언염송으로 살아온 날들

원각화 최채숙 보살

이런불자

처녀시절 밀교에 입문

한결같은 믿음으로 세파를 이겨

우리가 종교를 믿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때 혼자 힘으로는 극복하기 힘들어 큰 힘에 의지하고자 종교를 찾는 것이다. '一切唯心造'를 근본교리로 삼는 불교신자들도 종교를 갖게되는 동기는 이와 별반 다르지않다.

그러나 여기 崔彩淑 보살(61)은 경우가 다르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별나게 힘겨운 일과 만난적이 없어 굳이 종교적 강한 존재에 매달릴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벌써 40여년 누구 보다도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오고 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불공을 한다. 1시간 정도 정진한다. 서원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인 것은 아니다. 그냥 생활습관으로 굳어졌을 뿐이다. 또 崔보살은 실지사 총무를 벌써 25년째 맡아오고 있다. 하는 일이란게 매달 보살들로 부터 작은 액수를 거둬 저금하는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지만 그일을 강산이 두 번이 훨씬 변하도록 계속해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처음에는 푼돈이던 것이 이제는 꽤 큰돈으로 불어났다.

"현교계통의 절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불공하러 절에 다니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절 안에 노인들이 기거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는데, 아직 우리 종단은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이 기둥이 되어 그 사업이 하루 빨리 이뤄지도록 서원하고 있습니다."

崔보살이 밀교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결혼하고 곧 바로다. 친정에서 현교 절에 다녔는데 결혼을 하니 시어머니와 시이모가 「옴마니반메훔」을 열심히 외고 있더라는 것. 이모는 자신의 집을 서원당으로 제공하기까지 했다고. 이들이 바로 우리나라 초창기 밀교의 숨은 공신인 것이다. 그때가 밀교가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50년대니까.

그는 아무런 반감없이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따라 서원당에 나가 열심히 육자진언을 독송했다. 그때는 시동생 둘도 함께 살았으므로 온가족이 자성일이면 서원당으로 향했던 것이다.

"부처님을 믿으면서 남들처럼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부처님의 가피를 누구 보다도 크게 입은 것같아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이들이 모두 올곧게 자라 일류대학을 나와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고, 또 지극한 효자효녀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평소 자식들에게 강조한게 「남을 이롭게 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이라고. 종교생활을 하며 자연적으로 갖게된 인생관을 집에서 실천했고, 그게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된 것 같다고 말하는 崔보살은 또한 각자님과도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각자님이 열반했을때가 평생에서 가장 힘든 때였던 것 같군요. 생전에 유별나게 금실이 좋아서였는지 혼자 남게되자 그 허전함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아프기까지 했어요. 그때 무엇에라도 몰두해야겠다는 생각에 서예를 시작했어요."

최보살의 서예는 수준급이다. 입상경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보살에게 위로가 된 것은 종교생활이라고. 각자님이 열반하신 후 더욱 열심히 절에 다니고 있다. 경인교구합창단에서 음성을 공양하고, 총지불교대학 제1기생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건강칼럼

위궤양

흡연·음주는 위궤양의 지름길

속이 쓰리다,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된다는 증상은 너무나 자주 듣는 터라 전문가가 아니라도 위염이나 혹은 위궤양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위장과 관련된 질환이 많으며 악성종양 중에도 위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궤양의 전형적인 증상은 통증이라기 보다는 심한 공복감, 즉 배고픔을 참기 힘들다는 느낌이며 속쓰림을 호소한다. 그러나 궤양의 크기가 큰 경우나 천공이 생긴 경우에는 격심한 통증을 느끼는데 이 때는 명치 끝 부위 뿐 아니라 등쪽 가슴부위까지 전이 되는 통증이 있게 된다. 궤양의 증상은 개인에 따라, 궤양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복시의 속쓰림이 있고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호전되는 주기적인 리듬을 가진다.

흔히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되고 목까지 치미는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은 실제 위염이나 궤양이라기 보다 신경성인 경우가 많으나 대수롭지않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2주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궤양을 유발하는 요인은 유전적으로 위산분비가 많거나, 흡연, 음주, 지나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등이며 최근에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주목되고 있다.

흡연의 경우 궤양치유를 더디게 할뿐 아니라 치유된 궤양의 재발 빈도를 늘인다. 알코올은 농도가 10% 이하인 경우는 위점막 손상이 뚜렷치 않으나 20%이상인 경우는 거의 위점막손상을 초래한다. 그외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소염제로 인한 궤양도 있다. 양성 위궤양의 치료는 2~3개월간의 약물투여가 필요하다. 음식은 지나치게 짜고 맵지않다면 적당량을 때맞추어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궤양에서 죽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밥보다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영양과 수분의 과다섭취만 있을 뿐이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음식만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가원내과 원장 김옥희〉

문의 02)430-0447

번뇌에서 참회로

일상에서

부처님의 광명이 밀교의 지혜로

번뇌에서 참회로 밀교의 시작은 우주에 지구가 생기면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행성은 에너지를 끊임없이 지구에 보내고 지구는 이러한 에너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지요. 지구는 그 에너지에 의해 존재하고 우리 중생들은 지구에 의해 존재 하고 있지요. 이것은 여러모로 과학적으로 증명된다고 합니다. 밀법이란 지구의 원초적인 데서부터 시작되었고, 밀교의 가르침이 나타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때 부터라고 합니다. 저는 1980년부터 정각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었을때 내가 여기를 왜 이제 왔을까 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올 곳은 바로 여기구나 했습니다. 스승님의 설법을 열심히 들으면서 스승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대덕승으로부터 법계 이전의 진리가 있다는 설법을 들었습니다. 법계 이전의 진리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봤지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공덕 무더기인 육자진언에 의해 팔년만에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우주의 진리였었구나. 우주의 수많은 별중에 화·수·목·금·토성이 지구의 원소였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이 틀렸는지 옳은지를 몰라 궁금해하던중 어느날 TV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문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듣고 저의 생각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주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넓으니까요. 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태장계 금강계는 화·수·목·금·토성의 에너지 즉 호르몬을 잘 조화하여 지구라는 거대한 것을 낳고 지구는 우리들 중생들을 낳았다고요.

그리고 태양계와 월성계 화성계 수성계 목성계 금성계 토성계는 지구의 날짜가 되고 세월이 되고 이 세상의 흐름이 되고있나 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 물결 위의 거품과 같이 육도윤회를 하고있나봅니다. 그러나 바르게 깨닫고 나의 본식을 본다면 그것이 곧 힘이고 광명이라 생각합니다. 깨치지 못하면 광명 속의 암흑이며, 미완성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예수교라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왜 석가교가 아니고 불교라 했을까? 불! 불은 위대한 힘이며 광명이지요. 불의 광명의 힘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암흑속에서 헤매일뿐 아무것도 완성이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봤을때 참 재미있는 것이 있지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잘났다고 힘주어 떠들어대도 예수 또한 불의 제자임이 우주법칙에 의하여 나타남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 제가 그동안 종단에 원하는 바가 있었다면 인재를 키우는데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감은 좀 듭니다만 여러 스승님들께서 종단의 발전을 위해 분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경자〈정각사〉

자비정신을 실천합시다

사회복지위원회·소비자보호위원회 사업추진을 위한 후원회 가입 동참 권선문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불우이웃돕기 보육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처리 보상케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제현실에서 소비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 되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하루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됩니다.

부디 이 인연 공덕으로 한량없는 지혜와 복덕이 가내에 충만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 예금주 : (재)불교총지종
- 계좌번호 : 한일은행 역삼동지점

122-022117-13-202(사회복지위원회)

122-022051-13-501(소비자보호위원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3452(7485~6)

불교텔레비전 우리가 살립시다.

전국의 총지종 가족 여러분!

불교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불교 텔레비전이 그 동안의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 속에 이제 서서히 그 터전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불교 텔레비전은 종교방송 3사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우수프로그램상을 수상했는가 하면 언론사 선정 유망PP사로 주목 받으므로서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의 가능성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제4차 주식 공모는 초기에 경영목표로 제시했던 250억 자본금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서 더욱 안정된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울였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이번 주식 공모에 모두가 동참합시다.

이제 불교텔레비전의 전 이사진도 개국 3주년을 맞이하는 98년도의 흑자경영 달성을 위하여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으며 직원 모두도 경쟁력 강화 운동등 목표달성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방송국의 허가지연과 부가서비스의 개발 등 관련 법규의 제한으로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불교 텔레비전은 이제 그 힘찬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법홍포와 고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영상 매체 불교텔레비전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특히 우리 총지종은 불교텔레비전의 창립 발기인일 뿐만 아니라 이사 종단으로서 불교 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4차 주식 공모에 모두가 동참하여 불교텔레비전은 우리가 살립시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불교텔레비젼 이사 법공 합장

총지도량순례

도심속의 수행공간-관음사

믿음의 질을 추구하는 밀법도량

수행월주교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불심이 깊은 도시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국의 절은 부산 신도가 아니면 굶어죽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일례를 들면 부산에서는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도 '관세음보살'을 외며 구걸을 하고, 어떤 장사집에 가더라도 '불(佛)자가 써진 액자를 걸어놓았거나, 관음상이 그려진 불화를 모시고 있다. 이는 부산에 수적으로 불자가 많음을 얘기함과 동시에 불자들 한명 한명의 불심이 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산의 이러한 불교세에 조금도 뒤쳐지지 않는 총지도량 관음사를 찾았다. 부산의 변두리인 당감동에 위치한 아담한 사원이었다. 절 주변에는 소규모의 공장들이 즐비해 있었다. 연신 기계가 돌아가면서 내는 소리가 날아오고, 공기도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다. 생활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질퍽한 삶이 느껴지는 곳에서 관음사는 홀로 이색적이었다. 허름한 회색건물이 늘어진 곳에서 관음사는 순결한 백색건물에 하늘을 향해 '원만무애(圓滿無碍)를 상징하는 구상(球相)을 올리고 있었다. 삶에 고달픈 이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그러나 더욱 특별한 느낌은 관음사에 들어서면서 받게 된다. 대문을 넘으면 본채로 들어가는 입구에 빨갛고 노란 여러가지 꽃이 화려하게 핀 화분들이 들어오는 누구라도 반길 모양으로 앉아있다. 그리고 2층에 서원당이 있는데, 여기 또한 관음사 특유의 분위기를 띄고 있다. 그닥 크고 화려하지는 않으나 누가 들어와도 종교적 숙연함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오랜 시간 불자들의 불공으로 닦여진 엄숙한 기운과 정겨움이 있었다.

"우리 절에는 서원당이 생기면서 다니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일심으로 절을 가꾸고 있는 것이지요."

관음사 교도는 전신인 총기3년에 세워진 홍포서원당 시절부터 다니기 시작해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올곧게 종교생활을 해온 사람이 태반이라고 한다. 이들이 관음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수행월 전수님의 말씀을 하늘처럼 받든다. 개인적 아상을 조금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교도들을 이끌기 때문에 모두가 마음으로 절복하여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참회를 강조하는 편이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면 그에게 참회하라고 타일러요. 그 형식으로 절이 좋지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힌다면 시어머니가 있는 쪽을 보며 매일 절을 하며 '제발 우리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시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해보라고 가르치지요.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나쁜 감정이 우호적으로 바뀌지요. 그렇게 밉게 보이던 시어머니가 그런대로 괜찮게 보이기 시작해지지요. 그러고 나면 시어머니 또한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참회를 중요시하는 전수님을 따라 관음사 보살님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대상을 향해 참회의 절을 하는게 관음사의 전통이라고 한다.

총기 3년에 기둥을 세운 홍포서원당 시절부터 관음사는 포교에 주력해왔다. 합창단을 만들어 음성포교에 앞장섰고, 해마다 양로원을 방문해 불우한 노인들을 위로하기도 했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관음사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교도가 늘지않고 있어요. 처음 절에 왔던 사람이 불상이 없는걸 보고는 왠지 절같지 않다며 그냥 돌아가 버란후에는 다시는 오지 않지요."

불상이 없는 것도 어려움이겠지만 다른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관음사 인근에 부산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 천태종 사찰 삼광사가 있다는 것이다. 삼광사로 많은 불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관음사는 타격을 받고 있다고.

그러나 전수님은 별로 비관하지 않는다. 관음사에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않을 올곧은 신심을 가진 이가 많으니까.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예요. 교도분들 개개인의 확고한 신심이 더 중요하지요."

▲양로원을 방문한 신정희 회원들.

▲도심속의 수행공간 관음사

관음사의 영험담

간절한 진언염송으로 고통 해탈을

평소의 불공으로 공덕 쌓아야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지금 하고있는 기도가 성취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마 열심히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명심해야할 것은 기도가 성취된다는 믿음이다. 그리고 일심으로 간절하고, 진실하게 해야할 것이다. 서원당에서 자기가 바라는게 꼭 성취되도록 깨끗한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뤄지지 않는 경우란 없다. 그리고 기도가 성취되면 감사의 기도를 또 해야한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평소에도 늘 기도를 하는 자세이다. 아무 어려움이 없는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무슨 일이 터져 부처님 앞으로 달려가 빌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평소에도 늘 부처님을 가깝게 느끼며 사는 사람이 또한 기도의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 관음사 전 회장을 지낸 두 보살은 위의 기도법을 잘 알고, 또한 실천해 큰 공덕을 입은 사람들이다.

관음사 고문회장인 한혜영보살은 부동산업을 오래도록 해오고 있다. 부동산업이라는게 운이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쪽박을 찰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한보살은 십수년을 해오면서도 그닥 위험에 처한 적이 없다. 그네는 지금까지 그 일을 무사히 해옴은 물론 꽤 많은 돈까지 번 것이다.

한보살은 자신의 이같은 성공의 비결을 배차불공에 돌리고 있다. 집을 사거나 팔기 전에 항시 그네는 관음사 서원당에서 전수님과 더불어 배차불공을 한다고. 불공을 할 때는 너무나 간절하고 진실하게 한다. 만사가 순조롭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러면 절대로 손해를 본 경우는 생기지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보살은 평소에도 열심히 불공을 해온 사람이라고. 전수님에게 순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또 어떤 이 보다도 진실되게 종교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회장을 지낸 서정수보살은 집을 중수한후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갑자기 각자님의 발에 부스럼이 생기더니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신을 향해 번져갔던 것이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될 정도였다고. 가장이 이렇게 되니 집안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가족들 모두 슬픔을 느끼게 됐다. 서보살은 위기감을 느끼고, 전수님을 찾았다. 전수님과 더불어 1년 기도를 시작했다. 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했다. 그렇게 일년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각자님의 병이 완쾌되고, 자녀들도 모두 대학에 들어가고, 지금은 남 부러울 것 없는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다.

불교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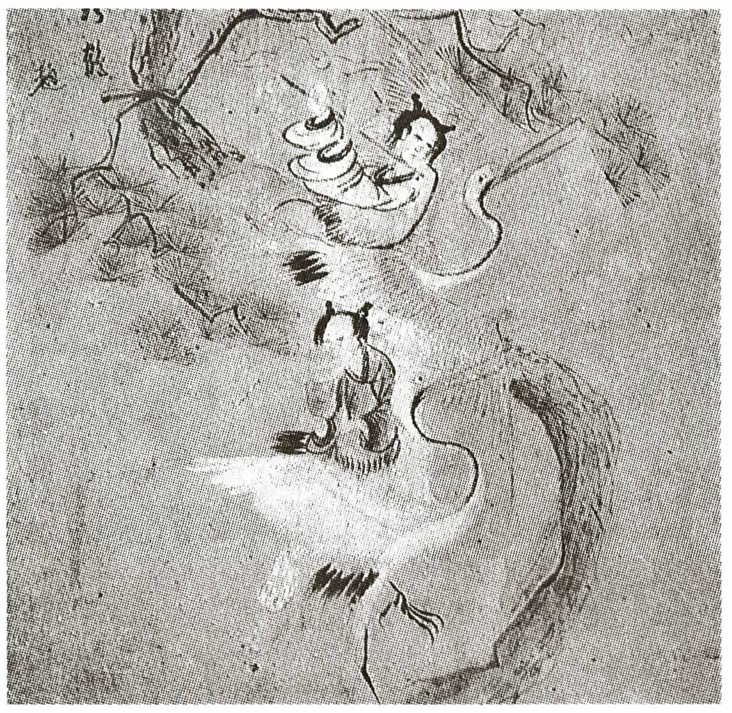
공덕천녀와 흑암

세상에 짝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절세미녀가 급한 걸음으로 어느 집에 도착하였다. 그 집의 주인은 기뻐하며 천녀가 자신의 집을 찾은 것을 반겼다.

"대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오신 분입니까?"

"나는 공덕천녀입니다.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금은·유리·파려·진주·산호·호박·마노·코끼리와 말·차와 비복 이런 모든 것들이 풍성합니다. 무엇이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집주인은 마음이 기쁨으로 넘쳤다. 그는 복신이 오셨다고 갖가지 공양물을 올리고는 공손히 예배했다.



집주인이 그러고 있는 사이, 또 한 사람의 부인이 들어왔다. 그 여자는 공덕천녀와는 반대로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추악한 몰골이었다. 옷은 남루하고, 먼지와 때가 줄줄 흐르며, 얼굴과 손의 살갗이 터져 그 사이로 살과 뼈가 드러나 보였다. 주인은 몹시 놀라 말도 제대로 못하였다.

"대체 네 이름은 무엇이냐?"

"내 이름은 흑암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집은 재물이 다 사라지고 망하고 맙니다."

흑암의 이 말을 듣자 주인은 칼을 빼들고 말했다.

"한시 바삐 나가라. 우물쭈물하면 목숨도 살려두지 않으리라."

"정말 당신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군요. 조금 전에 먼저 도착한 천녀는 바로 제 언니입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 언니와 함께 다닙니다. 그러니 만약 나를 내쫘는 일은 언니인 공덕천녀를 그대로 물리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인은 그 말을 듣자 어리둥절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덕천녀의 말을 듣기로 했다.

"맞습니다. 흑암은 바로 내 동생입니다.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언니인 나는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동생인 흑암은 악하고 궂은 일을 합니다. 만약 나를 반긴다면, 내 동생도 나처럼 반겨야 하는 것입니다."

"언니는 주고 동생은 빼앗는다, 그러니 언니는 복신이고 동생은 가난의 신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둘은 항상 같이 반겨 달라니, 나로선 어쩔 도리가 없군요. 당장 둘다 나가 주십시오."

공덕천녀와 흑암은 주인의 말에 따라 그 집을 물러났다. 주인은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시원하다고 하면서 기뻐했다. 두 자매는 이번에는 어느 가난한 집을 찾았다. 그 집 주인은 기뻐하면서 두 사람을 맞아들였다.

"아무쪼록 편안하게 쉬어 가십시오."

그러자 언니인 공덕천녀가 물었다.

"우리들은 이 앞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선 있어 달라고 하니, 무슨 까닭입니까?"

"별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귀인들이 힘들게 제 집을 찾아오셨으니 머물러 주십사고 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덕천녀는 생을 뜻하고 흑암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범부나 어리석은 사람은 생명을 기뻐하고 천년 만년 변함없을 것처럼 집착한다. 그러나 생의 바로 뒷면인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미워하는 마음조차 품는다. 그렇지만 보살은 생이 있으면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는 노·병·사가 뒤따르는 것이 라는 사실을 안다.

제3회 수명관정식을 봉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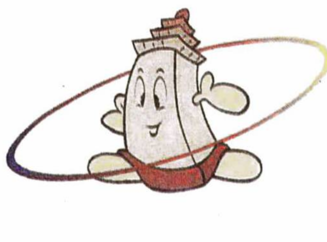
청련화와 그밖의 모든 꽃에서 풍기는 그 향기가 좋다고 해도 계행가진 사람의 계향(戒香)보다는 백분의 하나에도 비할 수 없다. 꽃향기는 바람을 못 거스려도 계향은 어디에나 흩어 퍼지며 내세까지 복덕이 끊임이 없고 부처님과 천신이 기뻐하시네.

—법구경—

불교총지종 신정회

불교문화 대제전

「총지종의 날」 통해 정통밀교 소개



불교전통문화의 가능한 모든 것을 보여준 「불교문화대제전」이 지난 9월5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여의도광장에서 열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불교텔레비전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1만여평의 행사장을 문화관 생활관 공연장등으로 나눠 불교문화전시 및 각종 이벤트를 마련, 불교잔치를 연출했다.

문화관은 다시 역사관·미술관·종단관·영상관·공예품관·사찰음식 전시관으로 나누어 불교의 변천과정과 오늘의 현황, 그리고 불교의식에서 비롯된 불교미술 ·음식 등이 소개됐다.

10일 동안 열린 이번 행사에 총지종은 종단관을 운영하고, "총지종의 날"을 통해 본종의 종지와 정통밀교의 모습을 일반대중에게 소개했다.

종단관에 마련된 전시관에는 금강계만다라 태장계만다라의 양부만다라를 비롯하여 비로자나불, 관세음보살및 준제보살이 그려진 불화, 우리나라 밀교 종단중 우리 종단만이 유일하게 행하고 있는 준제 결인등 여러 수행상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각종 염주와 대일경, 준제다라니경 등의 희귀한 목판본 밀교 경전 등이 전시됐다. 전시관의 중앙에는 본존을 모셨고, 매일 초를 켜고 향을 사르며, 일반 불자들의 신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비록 사진판이기는 하지만 양부만다라에 대한 일반인 및 관련인사들의 관심이 지대했으며 휴대용으로 나누어준 호신 다라니에 대한 호응은 놀랄 정도로 대단했다. 본산 소속 교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교대로 전시관에 배치되어 밀교에 생소한 이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며 총지종을 소개했다.

▲총지종관을 방문한 월주스님과 불교계 원로.

전시관에 나갔던 한 여교무는 "종단신관을 찾은 사람들이 매일 줄을 이었다. 특히 우리 전시관은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이들은 밀교에 생소한 사람들이었지만 다른 종단의 어떠한 전시관보다도 총지종의 전시관에 깊은 흥미를 보이며 상세하게 물어왔다. 그리고 만다라와 우리의 유가삼밀에 대하여 특히 관심을 보였는데 전시기간 중 힘은 들었지만 우리 종단을 알리는데 앞장섰다고 생각하니 무척 보람이 크다."고 했다.

한편 11일에 봉행된 「총지종의 날」행사에서는 기원 법회와 총지종 연합합창단 및 사물놀이 공연이 있었는데 법회에서는 총지종의 발전과 우리나라 불교의 흥성을 기원하고 조국평화통일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발원문에 이어 삼칠의궤에 의한 엄숙한 의례가 행해졌다. 이어서 진행된 합창발표에서는 2백40여명의 총지종 연합합창단이 국방부 합동군악대의 우렁찬 반주에 맞추어 여의도 하늘을 뒤흔드는 장관을 연출했다. 특히 삼귀의, 사홍서원 등의 작곡으로 유명한 최영철 선생은 이순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합창단을 지휘하여 노익장을 과시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사물놀이의 흥겨운 가락을 뒤로하고 막을 내린 이날의 행사에서 또 하나의 자랑할 만한 일은 승직자와 교도들이 누구의 지시나 사전 약속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행사에 참여하여 정돈된 모습을 보이므로서 구경나온 수많은 불자들의 찬탄을 자아내었다. 이것은 총지종의 결속력과 신심을 한 눈에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서 다른 종단의 귀감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 아쉬웠던 것은 주최측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불교를 알리고 불교 인구를 증대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임에도 불교계 자체의 무관심으로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총지종 연합합창단이 여의도를 흔들었다.

藝人을 찾아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민중의 아픔을 저변에 깔고

김봉준 화백

金鳳駿 화백(43)은 미술의 여러 장르에 손을 대고 있다. 한지 위에 먹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하는 동양화를 비롯해 강한 개성이 돋보이는 서양화, 그리고 섬세한 조각, 강한 칼자국이 남아있는 판화도 등 미술의 대부분 장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 작가가 이처럼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일관된 주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장르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작품을 보면, 깊고 높은 산을 의지삼아 나무가 자라고, 봄이 되면 고운 꽃이 피고, 계곡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사람들 또한 산을 의지해 소로써 밭을 일구고, 장작을 만들어 내다 파는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그의 그림에 보인다. 인간이 자연의 우위에 있지도 않고, 또 자연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다. 상부상조하는 인간과 자연이 있을 뿐이다. 그림 속의 풍경은 과거 우리민족의 삶의 공간이고, 지금의 우리가 그리워하는 평화로운 세계다.

그가 30대에 그렸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를 변절했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때 그린 그림들은 검고 굵은선으로 도시의 가난한 삶, 농촌의 현실적 절박한 문제등 주변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고, 공동체 삶을 추구하는 의식이 반영돼있으며, 주변의 불행을 아파하는 고뇌가 직접적으로 표현돼 있다. 당시의 어느 그림을 보더라도 더불어 잘살고자하는 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 그림을 그리던 그가 예술지상주의자들의 산물인 듯한 현실과는 무관한 이상적인 세계의 표현에 몰두하는데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제의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꿈꾸며 가난한 이웃의 삶에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그의 현실인식이 과거에는 포장되지 않은채 그대로 내보였다면 지금은 예술의 형태로 승화된 것이다.

"이상적인 평화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원 개개인이 원만한 인간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말처럼 다른 사람이 바뀌길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이상세계와 어울리는 인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가 터득한 이상세계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세계라고. 즉 개인과 세계가 하나가 된 상태인 것이다. 즐겨 표현하는 신명의 상태도 위의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신명의 상태에서 인간의 의식은 한없이 확대돼 나와 너의 구별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원래의 자연과 지금 우리가 접한 오염된 자연의 차이를 고발해 환경의식을 일깨우고자하는 의지도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월간 「환경운동연합」에 매달 그의 그림을 싣는 다고 한다. 진정으로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자연과 더불어 존재해야 한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커져버려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의 예술세계가 불교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이상인 보살도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가운데 초기에는 하화중생에 민감했다면 지금은 하화중생을 통해 상구보리를 체득했다고 할 수 있다.

불교미술과의 인연은 오래된다. 홍익대 조소과에 적을 둔 4년 동안 그는 민화와 불화를 배우기 위해 봉원사의 인간문화재 송암스님을 열심히 찾아 그 畵法을 전수받은 것이다.

"불화를 그리고 있으면 선의 경지에 든 만큼 고요한 경험을 하게되요. 그토록 산란하던 마음이 일념으로 가라앉지요."

그러나 그가 기존의 불화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옛날의 불화를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듯 그대로 따라그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옛날의 불화로 학습하되 자신의 모습을 담은 불화를 새로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기만의 부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현재 그는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취병리 진밭에 농가를 구입해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며, 작은 텃밭을 가꾸며, 그림을 그리며 살고있다. 지금까지 20여년을 그림에 몰두해온 그는 개인전 9회를 비롯 다수의 단체전을 통해 강한 현실인식을 보여왔다. 현재는 올연말 출간예정으로 그림과 산문이 있는 단행본을 준비하고 있다.

(0371)731－6757.

〈珠〉

정각사 불단 문양

신축되는 부산 정각사 불단에 사종수법의 종자와 함께 비로자나불을 중심한 4불의 상징을 조각으로 장엄한다.

아촉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

축하합니다

◆밀공정 전수님의 차녀 여기선양이 11월 16일(토요일) 오후 2시 30분 부산 국제신문사 4층 중강당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정심사 주교 연등원 전수님의 장녀 신상진 양이 10월 12일 오후 1시 서울 드림랜드 문화센타에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법황사 주교 법수원 전수님의 장녀 이은주 양이 10월 20일 오전 11시 전남 영광의 법성문화예식장에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한일은행 **자비실천의 千手, 千眼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한일은행

21세기 한마음통장 프로그램 개발!

통장이름을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찰 · 종단에서 통장이름을 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시면 불자께서도
사찰 · 종단에서 정한 통장과 동일한 이름의 통장으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세후이자의 20%를 사찰 · 종단에 기부!

불자께서 거래하시는 보통 · 저축 · 자유저축 · 기업자유예금의 이자결산시마다
세후이자의 20%가 은행만의부담으로 사찰 · 종단에 기부됩니다.

보너스금리 0.25%가 사찰 · 종단 재정을 쑥쑥!

별도로 정한 예금 · 신탁과목에 대하여 은행에서 불자에게 지급하는
0.25% 보너스 금리가 불자께서 지정하신 사찰 · 종단의 계좌로
이자발생시마다 보시됩니다.

자비의 실천!

위와 같이 조성된 기금으로 「불우이웃돕기」, 「포교활동」,
「사찰불사」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세기 한마음통장프로그램」이란
은행은 세후이자의 소정률, 불자는 은행에서 지급
하는 보너스금리를 사찰 · 종단의 계좌로
기부(보시)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용 프로그램이다.

가입 안내

■ **가입대상**

☆사찰 · 종단 또는 불자(관련 단체 · 회원 포함)
☆ 후원자(개인, 기업체 등 제한없음)

■ **통장의 구성**

기본계좌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연결계좌	정기예금(일반, 복리식), 정기적금(일반) 가계우대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 개발신탁(확정), 꿈모아적립신탁(정기적립식), 노후생활연금신탁

■ **통장발급**

☆ 사찰 · 종단의 단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사찰 · 종단에서 정한
통장과 동일한 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특별 서비스

■ **성지순례대출**

성지순례대출이란 불자가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해외여행시
따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자격
이 통장에 가입한 불자로서 대출금액 이상의 연결적금(계약고)
1회이상 불입자
★대출한도:최고 5백만원이내
★대출종류:보증대출

■ **특별서비스**

은행이 정한 일정기준 범위 내에서 은행과 사찰 · 종단은 별도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은 특별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공지사항 회원통지서비스 ★대여금고 무료이용 및 야간금고 설치
★통장의 디자인 ★ID카드 및 공익직불카드 발급 서비스
★ 사찰 · 종단의 특성에 따른 기타특별서비스도 제공하여 드립니다.

■ **자동계좌이체서비스**

보시, 후원금, 각종회비, 기금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소속 사찰 · 종단의 계좌로 이체하여 드립니다.

통장명칭	불교총지종
단체번호	000223

※ 위 번호를 다른 불자 및 후원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